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2017년 5월 18일, 망월동 국립묘지에서는 37주년을 맞는 5·18 광주항쟁을 기리는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기념사를 낭독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될 5·18 민주열사들을 직접 호명하였다. 그중에 광주 대동고 출신 표정두 열사의 이름이 뚜렷하게 들렸다. 광주의 아들이자 대동고의 아들이던 표 열사는 그로부터 대한민국의 아들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제단에 분신으로 자신의 몸 전체를 바친 투철한 의혼이 다시 불꽃을 튀기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표 열사는 1963년 전남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났다. 흑독한 유신독재의 말기인 1979년 광주 대동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80년 고교 2학년으로 광주항쟁의 한복판에서 양민 학살의 참극을 목격했다. 그리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 직접 시위에 가담하여 계엄군과 맞섰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 목숨을 건져, 1982년 봄 대동고를 졸업했다.

무참히 짓밟힌 항쟁의 비극을 가슴에 묻고 1983년 호남대에 입학했으나, 2학기에 휴학하고 곧바로 군에 입대하였다. 85년 제대 후 복학한 뒤로는 학교생활보다는 야학의 강학으로 민주 의식 고취에 힘을 쏟고 있었다. 86년 1학기 등록을 못해 학교에서 제적당하자, 본격적으로 '무등터' 야학 활동에 힘썼다. 하지만

표정두 열사의 삶과 의혼

노동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느라 야학도 중단했다. 1987년 새해가 되자,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가 남영동에서 물고문으로 숨졌다. 정국은 급변하면서 세상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박종철 살인 집단 학생운동이 고조되자, 노동현장을 뛰쳐나온 표 열사는 진저리나는 독재정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서 몸을 던져서라도 독재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마음을 굳히기 시작했다. 서울로 올라온 열사는 독재자 전두환도 밟지만 그들을 뒤에서 후원해주는 미국이 더 많다고 여기고 미국을 향해 거대한 거부를 선언했다.

"박종철 살인 집단 내라!" "광주학살 책임져라!" "내경간섭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인화물질을 몸에 뿌리고 불을 당긴 뒤, 광화문의 미국 대사관 쪽으로 향하다, 타오르는 불길에 안고 거리에 쓰러졌다. 아까운 생명을 민족과 국가를 위해 바치고 만 것이다. 이런 장렬한 열사의 죽음을 어떻게 잊고 지낼 수가 있었는가! 그 날이 바로 1987년 3월 6일이었으니, 방년 24세의 젊은 의혼은 그렇게 해서 이승을 떠나고 말았다.

고려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8일 사망하자, 악독한 당국은 그날 바로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하여 바로 광주로 운구 도중 금강에 뱃가부를 흩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88년 봄 호남대 교정에서 1주기 추모제를 참으며 거행할 때, 나는 고인의 스승이라는 이유로 함께 자리하여 쫓 한 송이 바치며 묵념을 올렸던 기억이 있다. 장례 전후의 모든 유품도 경찰이 압수해 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 그 뒤에 남은 유품 몇 가지를 모아 학우들의 힘으로 망월동 민주 민족열사 묘역에 안장하였다.

학생운동과 야학 및 노동운동 동지들의 끈질긴 노력

으로 1991년 5월 삼촌동 호남대 교정에 열사 추모계승비가 세워졌다. 호남대 학생회의 힘도 컸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지내던 표 열사. 2001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2016년 5·18 밖의 5·18 관련 열사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표 열사도 조명되기 시작했다. 문대통령 호명 뒤에 그해 12월 호남대에서 명예졸업장을 수여받았고, 열사 계승비가 그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5·18 기념 공원으로 이전하여 바르게 세워졌다.

금년 6·10항쟁 34주년을 맞아 민주열사들에 대한 국가적 현양 사업으로 표 열사에게는 민주화운동 유공자 국민훈장 모란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수여되었다. 죽지도 못한 스승이, 장렬하게 산화한 제자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동안 부끄러움 때문에 표 열사에 대한 언급은 가능한 삼가 왔다. 이번 훈장 수여를 계기로 그를 다시 기억해야 할 때를 맞았다. 마침 표 열사와 함께 야학의 강학 활동을 함께 하면서 가장 가까이 지냈다는 '표정두열사 기념사업회 회장' 서민수 씨로부터 표 열사가 내 제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나에게 관한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말해 주었다. 부끄러웠지만 나를 그렇게 잊지 않고 지냈다는 이야기를 듣자, 나도 그를 기억하고 생각해야겠다는 마음을 더욱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라가 망하자 아편을 마시고 자결했던 지사(志士)이자 시인이었던 마천 황현 선생을 생각하면서 분신으로 민주주의를 찾으려던 표 열사를 다시 생각한다. 우리가 80년 초 독서회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책 읽기를 권장할 때 표 열사도 열심히 독서회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더욱 그에 대한 그리움이 견디기 어려워진다.

※열사의 일상에 대해서는 그의 동기동창인 강기정 전 의원의 도움을 받았다.

기고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

인공지능으로 열어가는 미래 농업 축제

조 7000억 달러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규모의 성장에 따라 전 산업에 걸쳐 생산 방식의 변화, 시장의 개편 등과 같은 대혁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농업에 가져올 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첫째, 농기계의 변신이다. 사람에게 의해 조작되는 현재의 농기계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자율 주행으로 운행하게 될 것이다. 농기계를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 농민들은 농작업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축제 제1막이다. 둘째, 농업용 로봇의 개발과 보급이다. 농업용 로봇은 파종·퇴비 살포·제초·방제·수확 등 다양한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다. 로봇이 농작업을 수행하고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축제 제2막이다. 셋째, 농경지의 첨단화이다. 농경지에 자동관배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과 연계하면 날씨와 물 온도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급·배수 작업을 하고 최적의 물 온도를 구현하여 농작업의 생력화 및 농작물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축제 제3막이다. 넷째, 정밀 농업의 구현이다. 정밀 농업은 작물 생육 상태, 토양 조건 등과 같은 변수에 따라 적절한 농약·비료·물·양액을 투입하고 농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인데 인공지능으로 인해 더 고도화되어 농산물을 더욱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축제의 클라이맥스(Climax)이다.

이처럼 2030년 농업의 모습은 온통 축제라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피에스타(Fiesta) 2030 농업'을 외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농업기계용 인공지능과 시스템 반도체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농기계, 농업용 로봇 등의 이용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활용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농기계 관련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키워야 한다. 둘째, 빅테크 기업과의 연계 또는 농업 분야 빅테크 기업의 육성이다. 대표적인 예가 전남 지역 친환경 농수산물 이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 전라남도 브랜드관으로 입점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고품 유자차, 장흥 청국장 등이 첫 수출 20여 일 만에 완판되는 성공을 거두었다. 셋째, 농업 분야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제도의 마련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인공지능으로 검색을 하면 6월 말 현재 단 한 건의 법령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 식량안보 측면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농업 분야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제도를 신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에 의해 펼쳐지는 환상 동화과 같은 세상의 대혁신 속에서 농업도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여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인공지능 농기계와 로봇들에 의해 창출되는 소득을 모 든 계절 누리며 매일매일 화려한 축제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는 주인공으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사학 혁신 지원사업’ 추진의 의미

린 이사회 운영, 이사 구성의 개방성·합리성 강화, 인사 공정성 강화, 구성원 참여·소통 강화, 자체 감사 강화 등의 세부 과제들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다양한 혁신 과제들을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다. 상지대는 이사회 의결에 대한 이의 제기 제도 마련과 사학 혁신 공유대학 체계 구축, 성공회대는 개방이사의 추가 선임과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회계·노무·법률 분야의 교육 이수 의무화, 성신여대는 개방이사의 추가선임과 이사회에서 예산·결산 의결시 구성원 참관 허용, 평택대는 이사회 회의록 상세 공개 및 환류 시스템 구축과 총장 및 교무위원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 등을 선택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이번 사업에 선정된 조선대는 사립대 최초로 학교법인의 이사 중임 기간을 제한하고 설립자 친·인척의 이사장 선임을 방지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법인 이 사들의 중임 제한 규정이 없으며, 이는 대학의 설립자들은 물론 소수의 이사들이 사학을 사유화하고 영구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족벌 체제를 구축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은 조선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학 법인을 민주화하는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조선대는 교직원과의 주기적 건담회, 대학에 대한 법인의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학내 거버넌스의 개선과 법인의 재정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 마련 등을 선

택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립대학의 위상에 맞는 법인 운영을 제도화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사학 혁신 지원사업은 그동안 비리로 얼룩진 우리나라 사학을 혁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학들은 한편으로는 재정 위기를 호소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대학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법인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노력은 소홀히 해 왔다. 교육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학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사학들조차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허무맹랑한 논리로 이 사업을 외면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학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학이 고사되어 학생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경영권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식의 대응이다.

사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학교법인의 공공성 강화와 연계시키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대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사립대학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막대한 규모의 정부 재정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책무를 소홀히하고 마치 일반 사기업처럼 대학을 운영하는 사학에게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이유는 딱히 없다. 사학 육성은 법인 운영의 공공성을 기본적으로 갖춘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즉별 사학과 보수 언론의 저항은 불 보듯 뻔하지만 이들은 대학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다.

社說

광주 주요 관문에도 선별진료소 설치해야

수도권발 코로나19가 광주·전남 지역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 예방 유입의 통로 역할을 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확진자와 의심환자, 자가 격리자 등이 버스터미널을 통해 광주로 들어온 뒤 대학이나 식당 등을 누비고 다녀 지역사회가 대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역 최전선인 이들 관문에 선별진료소 등 방역 시스템을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터미널 등 주요 관문은 냉방시설을 갖추고 있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면 폭염 속에도 이용객들이 진단검사를 보다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부스까지 마련한다면 홍보 기능까지 겸할 수 있다. 문제는 기존 선별진료소 운영에도 빠듯한 방역 인력과 예산의 확보다. 광주시는 심상치 않은 확산세를 감안해 전문가들과 함께 강도 높은 선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힘들게 일하는 의료진과 정은경 청장을 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진을 참 고생이 많다. 열음조끼가 제공되지만 폭염에는 10분도 채 견디지 못한다. 열음이 녹아 '뜨뜻한 물 조끼'가 돼 버리는 것이다. 전신방호복, 덧신 등을 갖춰 입고 나면 기만히 있어도 땀으로 목욕할 정도다. 이마와 얼굴을 덮은 얼굴 가리개(페이스 실드)로 인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땀도 닦지 못한 채 눈만 깜박인다.

선별진료소 내에서는 에어컨도 사용하지 못해 송풍기만으로 무더위를 견뎌 내야 하는 실정이다. "폭염과 싸우는 게 가장 힘들다"는 것이 요즘 의료진들의 하소연이다. 무더위에 방역 글러브에서 손을 빼지 않고 하루 종일 근무하다 보면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아 팔이 저리고 머리가 돌기도 한다. 이처럼 힘들게 일하는 의료진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찡하다.

이런 가운데 들려오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소식은 우

리에게 작은 위안을 준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 청장의 6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한 달간 32건 399만 5400원이었다. 도넛 5000원어치를 결제하기도 했는데 대상 인원은 5명이었다.

정 청장의 업무추진비가 화제가 된 것은 사용 내역 중 밥값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에 직원들과 식사할 때 3만 원 이하의 밥을 먹어야 한다. 이 때문에 1인당 2만9500원의 식사를 하는 기관단체장들이 많은데, 정 청장은 1인당 1만6000원 정도였다.

정 청장의 업무추진비가 미담으로 회자되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응당 써야 할 용도가 아닌 엉뚱한 데 업무추진비가 쓰일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정 청장의 노고와 아울러 폭염과 싸우며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無等鼓

프랑스 사람들은 빛과 어둠이 뒤섞여 낮도 밤도 아닌 모호한 경계의 시간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른다. 원래 해질 녘을 의미하는 프랑스어(L'heure entre chien et loup)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다. 저 언덕 너머 실루엣으로 다가오는 짐승이 내가 기르는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다양한 분야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동이 틀 무렵 어둠과 새벽빛이 혼재된 때도 그와 같은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 한다.

‘개와 늑대의 시간’

지난 2007년 방송된 드라마 '개와 늑대의 시간'은 가족의 복수를 위해 해 범죄 조직에 잠입한 정보원의 이야기를 다뤘다. 한·중·일 550만 네티즌이 '최고의 드라마'로 선정했을 만큼 작품성과 흥행 면에서 인정을 받았다. 암흑세계에 뛰어들어 정보원이 범죄 조직의 딸을 사랑하게 되면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운명의 달레마는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벼락 거지' 같은 말이 생겨날 만큼 부동산은 핫이슈로 부상했다. 정부 부처 주장

들이 아파트값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매수를 당부했지만,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폭젓점일지 혹은 최저점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개와 늑대의 시간'에 접어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수도권까지 커진 단기가 격상됐다.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 감염이 급증한 데다 델타 변이가 광범위하게 퍼진 탓이다. 사실상 코로나 청정지역은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에

에서 만나는 사람 중 누가 감염자인지 알 수 없는 '개와 늑대의 시간'을 살고 있는 셈이다. 함규진 서울교대 교수는 저서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대통령 선거를 '개와 늑대의 시간'으로 규정한 바 있다. 물론 검증은 거처다 보면 후보자들의 실재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향후 점점들의 경쟁은 결국 '개'와 '늑대' 중 한 사람을 뽑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지만. 바이흐르 사랑도, 아파트도, 코로나도, 선거도, 아니 모든 일상이 '개와 늑대의 시간'에 얽혀 있는 셈이다. 누가 '개'이고 누가 '늑대'인가?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기고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13일 교육부는 사학 혁신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공영형 사립대 실증 연구에 참여했던 조선대, 상지대, 평택대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성신여대와 성공회대 등 총 5개 대학이 선정되어 향후 2년 동안 20억 여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대학들은 모두 우리나라 사학의 민주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대표적인 사학이라는 점에서 선정 결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없을 듯하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사학법인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자 일종의 '우회로'로 선택한 것이다. 말 그대로 '사학 혁신'을 위한 정책으로 교육부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그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수 과제로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 등을 의무 이행 과제로 두고, 각 대학이 법인과 대학의 협력 강화, 개방이사 역할 강화, 열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 원국 |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32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4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220-0652 | 체육부 220-0621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본부 220-0642 | | |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